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 HiRD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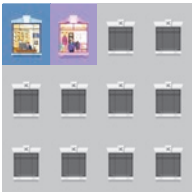
2023 February vol. 320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일** 2023년 2월 1일  
**발행인** 어수봉  
**편집인** 윤명섭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미디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우선정  
**글** 박소현  
**전화** 051.636.1210



#### Cover Story

색색의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2023 HRD Korea 2월호에는  
 능력중심사회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값진 노력과 시간을 스민 형형한  
 색채를 담았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HRD KOREA」는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  
 지원, 해외취업, 숙련기술장려 및 기능경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HRD)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월 제작해, 무  
 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외부글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람으로 #빛고

hi

- 04 **능력을 빛는 사람들**  
옷감으로 꿈을 재단합니다  
\_ 양민석 모던라인 대표
- 08 **NCS 돌보기**  
의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다  
\_ 패턴 직무분석
- 10 **HRD Focus**  
토끼처럼 경청! 공단과 함께 성장할 슈퍼루키
- 14 **업그레이드 HRD**  
국가자격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다

## #기술로 #살아

R

- 16 **HRDK 인포그래픽**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18 **HRDK 이야기**  
NCS기업활용컨설팅, 새로운 도약의 날개가 되다  
\_ (주)에너넷
- 22 **미래를 짓다**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수상작
- 24 **상생스토리**  
성장과 자립이 움트는 희망일터를 일구다  
\_ 찬솔사회적협동조합

## #한 단계 #성장하며

ID

- 28 **함께 한 걸음**  
그리움이 이야기가 되다 \_ 속초 아바이마을
- 32 **세대공감 비즈니스**  
세대를 관통하는 감성, 레트로(Retro)
- 34 **뜨는 키워드, 뜨는 직업**  
불황에 맞서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_ 체리슈머

## #이어지는 #HRDK

K

- 38 **읽어주는 직방**  
면접 유형별 완전 정복!
- 40 **청렴 이야기**  
새해를 맞는 청렴의 다짐
- 42 **HRD뉴스**
- 44 **독자이야기**

지식, 기술, 태도까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한 NCS.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훈련과정 설계와  
직무급 도입 등을 위한 컨설팅으로 인재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기업엔 현장중심의 인재를, 근로자에게는 직무에 딱 맞는 능력을!  
산업현장 맞춤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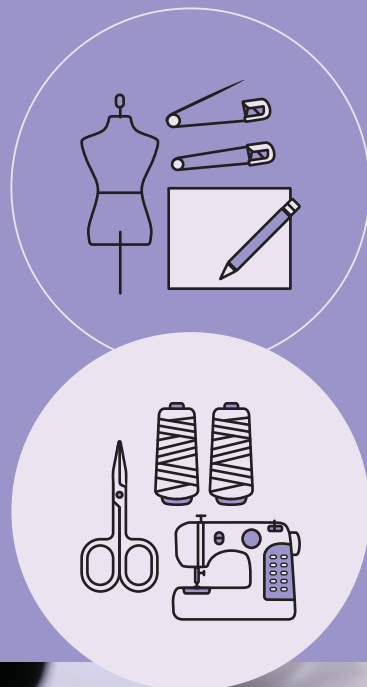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길

NCS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기업 수 (누적, 2022. 12월 기준)

6,264<sub>개</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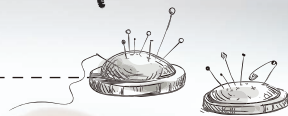
NCS 직무 총합 (2023년 현재)

1,083<sub>개</sub>



웃음으로 꿈을  
지니는 사람들

양민석 모던라인 대표



옷을 짓는 일은  
멋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옷을 짓는 일은 멋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50년 가까이 옷 패턴을 제작해온 양민석 모던라인 대표의 한 줄 가르침이다.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여성복의 유행이 돌고 돈 오랜 시간 동안 늘 ‘소통’하며 지켜 온 최고의 자리. 그리고 지금, 70대의 나이에도 열정을 불태우는 양민석 대표를 만나본다.

### 금메달의 무게, 실력으로 풀다

1970년대 대한민국 패션의 메카는 단연 명동이었다. 갓 스무 살에 접어든 양민석 대표도 명동에 발을 디뎠다. 어릴 때부터 눈썰미가 좋은데다 손끝이 야무졌던 그를 눈여겨본 사촌의 권유 덕분이다. ‘재단사’, ‘패턴사’로 불리던 모델리스트로서의 첫걸음은 끝없는 수련의 과정이었다.

“실밥을 뽑고, 다리미질을 배우고, 바느질을 하나 하나 익히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가봉을 도와 수정 사항을 표시하고 재봉하도록 보조하며 옷 전체의 구성을 눈에 넣었고요. 계절마다 소재가 다르니 계절을 한 바퀴 돌아야 제대로 기본기가 잡히겠더라고요.”

양민석 대표는 서두르지 않았다. 옷 한 벌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패턴부터

덤벼들면 옷의 구조적인 연결에 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복은 곡선이 많고 입체감이 중요하다. 그림으로 표현된 디자인을 실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구현해주는 패턴 작업은 그만큼 섬세해야 한다. 공식처럼 내려오는 패턴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옷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보는 눈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또 하나, 어떻게 해야 더 쉽고 빠르게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남들과의 차이점이었어요. 시키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내 방식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게 훗날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되더라고요. 국제기능올림픽에 관심을 가진 것도 외국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였어요.”

서울 대표로 기능올림픽 지방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양민석 대표는 전국대회 금메달을 거머쥐며 1977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했다. 긴장도 잠시, 연습한 대로 실력을 발휘한 결과는 값진 금메달로 돌아왔다. 김포공항에서부터 당시 중앙청까지 이어진 카퍼레이드와 시민들의 환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하지만 ‘과연 내가 금메달 자격을 갖췄는가?’라는 고민도 깊어졌다. 주변의 달라진 시선에 으쓱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겸손하



#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법



게 자신을 돌아본 양민석 대표는 더 치열하게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의 나이 겨우 스물셋의 일이었다.

## 사람 중심 제도법, 틀을 깬 도전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어요. 체격이 상당히 큰 여성분이 오셨는데 속으로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났죠. 익힌 대로 옷을 만들었지만 제가 봐도 별로였습니다. 기존의 제도법은 통계치에 기반해서 등분을 나누거든요. 당연히 다양한 체형을 지닌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양민석 대표는 틀을 깨기 시작했다. 기존보다 4~5개의 치수를 더 켜 다음 이를 반영한 제도법을 만든 것이다. 누가 입어도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옷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특이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는 패턴으로 명성을 쌓았다. 원통형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 다트 수를 추가하는 대신 길이는 줄였고,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고객을 위해서는 바지 길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골반에서 조절해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완성했다. 멋진 옷 이전에 사람을 위한 옷을 만드는 모델리스트의 매력을 제대로 즐기게 된 것이다.

“디자이너가 아무리 멋진 옷을 구상해도 입을 수 없다면 그림에 불과합니다. 라인을 잡아



입체감을 살려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모델리스트의 역할이죠. 또한 내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세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즘 감각도 빨리 따라잡을 수 있어요.”

어느덧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디자이너와 손발을 맞추는 양민석 대표. 하지만 어려움은 없다. 디자이너의 방향과 의도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때론 자신의 경험을 노하우로 전하며 소통하다 보면 어느새 나이는 무색해진다. 덕분에 유행에 민감한 패션업계에서 그는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 후배들과 함께 꿈꾸는 모델리스트

일찌감치 최고의 자리의 오른 양민석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현장고수단으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기본 제도법보다 까다롭지만 실무에 활용도가 높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했고, 기능올림픽 전국

대회 심사장을 역임하며 료도 혁신적으로 바꿨다.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죠. 배우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의상을 제대로 공부하려는 친구들은 꼭 다시 찾아와 더 깊게 가르쳐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명품 브랜드 구찌를 거쳐 알렉산더 맥퀸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국내 패션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도 여럿 있습니다.”

양민석 대표는 자신의 업적보다 제자들의 활약상을 더 신나게 풀어 놓는다. 그는 늘 그랬다. 일본식 용어투성이인 패션 전문 서적에 한계를 느끼며 교재를 손수 만들고, 패턴 설계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으며, 곡선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곡자를 직접 고안해 특허까지 냈다. 당연히 후배들을 위한 행보였다.

“조만간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요. 후배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도록 배움을 전하는 게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꿈꾸는 자는 성공한다고,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뤄진다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양민석 대표가 후배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기술이 아니라 ‘꿈’이었다. 꿈을 가져야 배움의 의지가 생기고, 치열하게 배워야 남과 다른 기술력을 다질 수 있다. 세세한 기술은 그가 가르칠 수 있지만 꿈꾸는 것만큼은 각자가 해야 할 몫이다.

만약 그 꿈이 아득하다면 양민석 대표의 작업실에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묵직한 가위와 누름쇠, 올림픽 출전 당시 썼던 골무, 20대 청년부터 지금까지의 성장사가 담긴 사진이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공간. 그곳에 후배들과 함께 꿈꿀 준비를 마친 근사한 금메달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패턴  
직무분석

## 의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다

패턴은 의복 생산을 위하여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패턴제작,  
패턴수정, 그레이딩, 원부자재 소요량 산출,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하는 일이다.  
패션제품기획 중에서도  
패턴 직무에 대해 알아보자.

### # 패턴 NCS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수준
1	핏 경향 분석	4
2	패션상품 샘플작업지시서 분석	3
3	메인패턴 제작	5
4	봉제사양서 작성	5
5	패션상품 생산기술 지도	4
6	패션상품 QC샘플 검사	3
7	그레이딩	2
8	패션상품 원부자재 소요량 산출	3
9	패션상품 품질관리	3
10	샘플패턴 수정	5
11	여성복 샘플패턴 제작	5
12	남성복 샘플패턴 제작	5

18. 섬유·의복 > 02. 패션 >  
01. 패션제품기획 > 03. 패턴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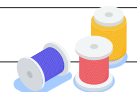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  
NCS 및 학습모듈 검색





## # 그레이딩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패턴의 능력단위 가운데 그레이딩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필요한 능력단위 요소는 ① 그레이딩 편차 확인하기 ② 패턴입력하기 ③ 사이즈별 패턴 제작하기가 있다. 다음은 ③ 사이즈별 패턴 제작하기에 필요한 수행준거와 KSA(지식·기술·태도)다.

분류번호 1802010308_15v2    능력단위 명칭 그레이딩	
정의	그레이딩이란 사이즈 분류와 그레이딩 편차를 확인한 후 사이즈별 패턴을 제작하는 능력이다.
요소	1802010308_15v2.3 사이즈별 패턴 제작하기
수행준거	<p>3.1 인체 특성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그레이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p> <p>3.2 메인작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대량생산용 사이즈별 패턴을 제작할 수 있다.</p> <p>3.3 메인작업지시서에 따라 사이즈별 패턴에 패턴 부위별 시접을 넣을 수 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지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형과 인체 비율에 관한 지식</li> <li>* 의복 디자인과 패턴 관계에 관한 지식</li> <li>* 그레이딩 방법에 관한 지식</li> <li>* 부위별 그레이딩 스펙의 배분방법에 관한 지식</li> <li>* 메인작업지시서 해석에 관한 지식</li> <li>* 도식화 분석 지식</li> <li>* 패턴제도 방법에 대한 지식</li> <li>* 시접처리에 대한 지식</li> <li>* 시접량에 대한 지식</li> <li>* 의복 봉제 방법에 대한 지식</li> <li>* 대량생산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식</li> <li>* 패턴에 필요한 약어 및 원어해석에 관한 지식</li> <li>* 제도에 필요한 기호</li> <li>* 봉제 시 필요한 현장용어</li> </u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기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턴 CAD 활용 능력</li> <li>* 그레이딩 편차와 패턴과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능력</li> <li>* 수치개념에 따른 편차배분 능력</li> <li>* 패턴면적에 따른 편차배분 능력</li> <li>* 인체부위에 따른 편차배분 능력</li> <li>* 성별에 따른 편차배분 능력</li> <li>* 다양한 그레이딩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li> <li>* 겹쳐그레이딩(NEST패턴)을 보고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li> <li>*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이즈별 패턴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li> </u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의지</li> <li>* 세밀하게 메인작업지시서를 분석하는 태도</li> <li>* 패턴을 이해하려는 의지</li> <li>* 그레이딩 편차 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려는 태도</li> <li>* 디자인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li> <li>* 착장 시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는 태도</li> </ul> </div>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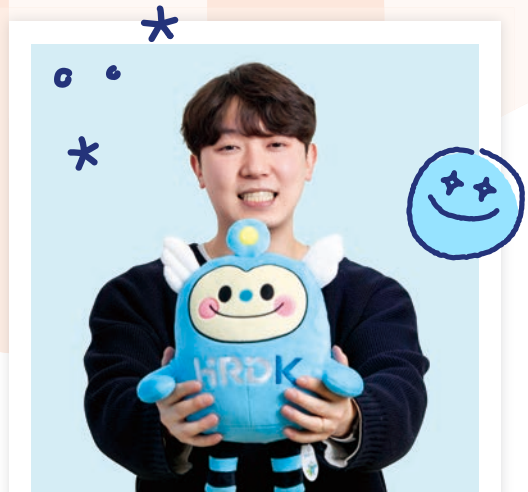
## 토끼처럼 켄충! 공단과 함께 성장할 슈퍼루키

공단 22사번 신규직원을 만나다



울산지사 기업인재혁신부 박혜빈 주임  
#나에게 공단은 [터닝포인트] 다!

저는 일학습병행과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서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직자 비학위 훈련과정에 관한 훈련과정 인정, 훈련비 전담인력수당지급 등 공동훈련센터 및 협약기업 지원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입사한 후 생각이나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제게 '터닝포인트' 같은 존재예요.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공정채용지원부 배승욱 주임  
#나에게 공단은 [안경] 이다!

청년 구직자의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별로 직무전문가를 연결해주는 것과, 지역별 1:1 취업컨설팅 제공 등이 대표적인 업무죠. NCS청년기자단 운영도 맡고 있어요. 깜깜했던 취업 준비 시절, 마치 딱 맞는 '안경'처럼 제게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준 공단에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2사번으로 입사 이후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을 3개월이 흘렀다.  
100일여간의 공단 생활은 어땠을지, 신규직원 4인을 만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보화지원국 정보화사업부 이택찬 주임  
#나에게 공단은 **[인생의 동반자]** 다!

마이스터넷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기능경기대회 온라인 원서접수 최신화 및 접수 테스트까지 수행했고, 관련 민원 응대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요. 대학 시절 기사 시험 준비부터 IPP 장기현장실습 참여, 입사 후 사회의 첫걸음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 공단은 제게 '인생의 동반자'와 마찬가지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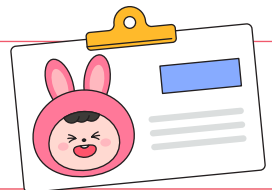


울산지사 필기시험부 한채운 주임  
#나에게 공단은 **[도전정신]** 이다!

상시 기능사 필기시험 시행과 기사·기능장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수험자분들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력·경력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지요. 입사 후 지금까지 새로운 경험이 가득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낯설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해보려는 마음도 또 하나의 '도전'이지 않을까요? (^\_^)



22사번 신규직원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취업 성공 노하우부터 공단에 입사하면 좋은 점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공단 입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박혜빈 주임** 이전 직장에서 협력사지원팀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외주를 주지 못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때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공단의 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에 대해 찾아본 게 인연의 시작이었죠. 그 이후 저도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배승욱 주임** 취업준비생이었을 때 기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공단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접수 과정에서 Q-Net에 필요한 기능들을 생각해봤고, 이를 적용해보고 싶어 공단 입사를 꿈꾸게 됐어요.

**이택찬 주임**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공단의 IPP 사업 중 하나인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론으로만 배우던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며 회사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죠. 이렇게 좋은 제

도를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어서 입사까지 준비하게 된 거죠.

**한채윤 주임** 취업준비 기간 동안 매일 산책을 다니던 공원 앞에 공단 지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접한 공단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매력에 빠지게 됐죠. 근로자로서 성취감과 발전 가능성도 있을 거라 생각했구요.

### 3개월차 뉴비 공단인으로서 기억에 남는 일은?

**박혜빈 주임** 입사 후 첫 업무가 기능경기 숙련기술사 업이었는데, 연말 유관기관 간담회를 주최하며 제가 사회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참석자분들께서 진행을 잘한다고 칭찬해주셔서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배승욱 주임** 가장 처음 했던 업무가 출장 결재 올리는 일이었어요. 첫 출근 후 바로 다음 주에 국가직무능력





표준원 전체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주도에서의 워크숍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택찬 주임** 최근 한 수험생분의 지방기능경기대회 온라인 원서접수를 도와드렸는데, 혼자 몇 시간 동안 고생하던 게 금방 해결되자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보람된 마음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됐죠.

**한채운 주임** 얼마 전 제가 담당하는 상시 기능사 필기 시험 1회가 시행됐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잘 집행할 수 있었죠. 당시의 훈훈했던 부서 분위기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 앞으로 공단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박혜빈 주임** 아직 수습 딱지도 못 뗀기 때문에, 큰 목표나 꿈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 빨리 숙달돼서 부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직원이 되고 싶어요!

**배승욱 주임** 공단 업무를 두루 수행하며 가고 싶은 부서가 생기면 그것을 목표 삼아 매진하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없이 공단에 적응하며 동기들, 선배들과 함께 정년까지 다니는 게 제 꿈입니다.

**이택찬 주임** 앞으로 이용자나 관리자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들을 잘 유지 보수하며,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홈페이지를 더 편리하게 전면 개편해보고 싶어요.

**한채운 주임** 지금은 업무를 잘 익혀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캐릭터로 본다면 '해냄이' 단계죠. 공단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저의 잠재력과 강점을 바탕으로 '이루미'로 성장하여, 믿음직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 신규직원들의 필수 아이템! What's on my desk?

#### 인공눈물 / 배승욱 주임

모니터를 보며 건조해진 눈 건강, 그리고 업무 능률을 책임지는 사무실 필수 아이템입니다.

#### 탁상달력 / 이택찬 주임

담당업무의 내용과 기한일을 달력에 모두 적어둬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 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 박혜빈 주임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늘 운영매뉴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서, 항상 책상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 다이어리 / 한채운 주임

다이어리를 일-주-월별로 정리하다 보니 3개가 됐습니다. 개인 업무와 검정 일정 관리 등에 없어서 안 될 물건이죠.

## 국가자격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다

### HRDK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지난 1월 18일, 공단 본부에서 국가자격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HRDK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 능력평가이사(단장), 능력평가이사 소관 4개 실·국장 및 실무추진반원 등이 참여해 추진단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변화의 첫 삽을 뜨는 시간이었다.

목표는 고객 만족,  
미래 국가자격 서비스를 설계하다

국가자격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공단이 앞으로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킥오프 회의에서는 HRDK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이 본격 출범하며, 더욱 진일보한 미래 국가자격 서비스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추진단의 국가자격제도시스템개편팀이 신설되어 구축 실무를 담당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국민 맞춤형 국가자격 통합플랫폼(Q-Net/CQ-Net) 구축, 원서접수 처리자원 클라우드화 도입, 블록체인 기술 기반 자격증 전자발급 및 연계강화 체계 마련, 차세대 NCS기반 출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취득·활용의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가자격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며, “고객들이 국가자격시험



원서접수와 시험 응시, 자격 취득과 활용까지 전 과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편의성·효용성으로 업그레이드될 국가자격 서비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의 사업계획 보고와 각 세부추진과제 발표가 있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자격별 개별 운영되던 출제정보시스템을 AI 기술을 적용한 통합 출제관리시스템으로 개선·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제기준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간 연계성을 강화해 국가 자격시험 출제의 정확성과 현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큐넷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에 탑재해 고객의 원서접수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매년 1,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큐넷은 490여 개의 국가기술자격과 공인중개사 등 37개 국가전문자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큐넷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가자격증을 전자지갑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사업을 연말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로 고객이 본인의 자격 취득 이력을 쉽게 확인하고 취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구축으로 응시원서 접수단계 단축은 물론, 전자검증 자격증 발급 서비스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출제관리 업무 효율화를 가져올 HRDK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이에 따라, 공단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자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차세대 출제관리시스템 구축



- ① 출제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 ② 문제출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대면 강화
- ③ 출제기준시스템 신규 구축
- ④ 공동인력풀 서비스 신규 구축을 통한 출제 공정성 확보

### 차세대 Q-Net/CQ-Net 시스템 구축



- 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Q-Net/CQ-Net 고도화
- ② 국가자격 시험결과 피드백 서비스 고도화
- ③ 국가자격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④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인프라 구축 등)

### 국가자격·훈련 디지털배지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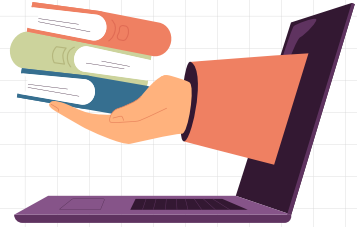


- ① DID(Decentralized Identifiers) 기반 자격훈련 관리 플랫폼 구축
- ② 국가자격·훈련 전자지갑 앱개발
- ③ 국가자격·훈련 디지털배지 구현
- ④ DID기반 응시자격 정보 관리 체계

## 직무능력 개발의 지름길!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일-교육-훈련-자격 연계의 핵심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량 백과사전, 인재양성 지침서, 직무능력중심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이다.



2013년 선체정비 등 240개 직무 개발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NCS 직무는 총 1,083개가 있다.

2023년 현재 NCS 직무 총

**1,083개**

NCS 기업활용  
컨설팅 업종별 참여현황

**460개**

NCS 기업활용  
컨설팅 운영기관

**213개**

NCS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누적)

**6,264기업**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NCS에 기반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직무분석, 역량 모델링 도출,  
맞춤형 채용 평가도구,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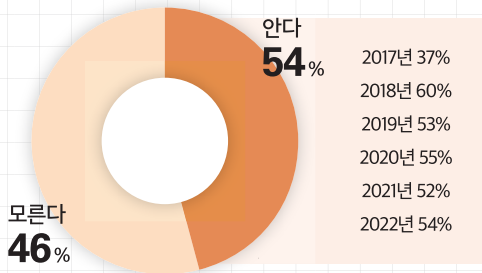


## NCS,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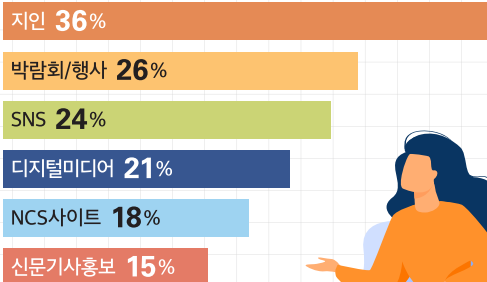
공단에서는 매년 NCS 인지도 조사를 실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NCS 정책·홍보효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점검과 홍보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조사대상 : 만 16세 이상의 남녀 1,000명 \* 표본오차  $\pm 3.10$  (95% 신뢰수준) \* 조사기간 : '22.11.15~11.30, 2주

### [ NCS를 알고 있나요? ]



### [ NCS를 어디서 알게 되셨나요?(중복 포함) ]



### [ NCS 정책 평가(5점 만점) ]

① NCS 정책의 도입취지 이해도 **3.63점**

② NCS 정책의 효용성 **3.66점**

#### ③ NCS 기반 채용의 효율성

- 직무능력의 평가의 적합성 **3.60점**

- 출신학교에 대한 비차별 정도 **3.46점**

- 과도한 스펙 불요구 **3.47점**

- 비용 및 시간 절약의 효율성 **3.3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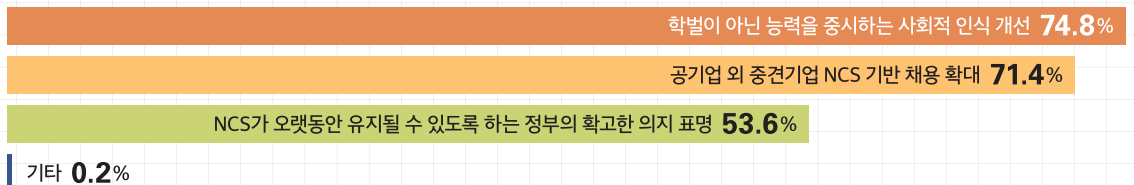
#### ④ NCS 기반 채용의 다양성

- 기존 채용과의 차별성 **3.58점**

- 지원자 능력 평가의 적합성 **3.49점**

- 직무 적합 인재 채용의 적합성 **3.52점**

### [ NCS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는?(중복 포함)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관심이 있다면?

중소·중견기업이 NCS를 활용하여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참여방법** NCS누리집([www.ncs.go.kr](http://www.ncs.go.kr)) 접속 ▶ [기업활용] 클릭 ▶ [컨설팅안내] 클릭 ▶ [컨설팅신청] 게시판 하단 '신청하기'에서 작성



## NCS기업활용컨설팅, 새로운 도약의 날개가 되다

2022년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기업 **(주)에너넷**

에너지서비스와 라이프서비스 제공기업 (주)에너넷의 비즈니스 키워드는 ‘홈(Home)’이다.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고객의 일상과 삶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매진해온 에너넷. 최근에는 체계적 조직관리시스템 마련을 통해 뿌리부터 더 탄탄한 내실을 다지는 것에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 NCS기업활용컨설팅의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주)에너넷을 만나보았다.





## 새로운 도전, NCS기업활용컨설팅

1996년부터 도시가스 분야에서 업력을 쌓아온 신승업 대표는 대전·계룡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인 CNCITY에너지(전 충남도시가스)의 대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13여 개 위탁 사업자 간 존재하는 품질 차이에 주목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 근로환경 개혁, 에너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생활 밀착 서비스로의 확장 등, 업계 최고의 서비스 전문회사가 되기 위해 2017년 (주)에너넷은 설립되었다. 현재 (주)에너넷은 대전지역에서 에너지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여 3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스마트모빌리티(스마트 파킹, 전기차 충전), 부동산 종합관리(임대·시설관리), 생활서비스(무인 편의점, 미화·방역, 공간매니지먼트)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젊은 CEO와 임직원들, 밝은 인사가 오가는 활기찬 분위기까지,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주)에너넷에도 고민은 있었다.

“이전까지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에너넷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생기업이다 보니 채용부터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성과관리까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었어요.” 최근 사업 규모가 확장되며 신 대표는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됐다.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모여 알아보던 중, 공단의 NCS기업활용컨설팅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 채용 확대와 훈련체계의 내실화를 이끈다

2022년, (주)에너넷 경영지원본부와 CS본부가 NCS기업활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조직분석, 직무분석, 인적자원 분석을 통해 총 11개의 직무를 도출해냈다. 선행된 기업 현황분석과 기업 요구분석에서 신승업 대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컨설팅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HR시스템을 구축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통합형 컨설팅도 진행했다. 원활한 컨설팅을 위하여 본부장급 1명, 팀장급 1명을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 또한 높였다. 그 모든 과정에서 신승업 대표는 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 없이 이야기하고 설득함으로써 추진동력을 얻었다.

(주)에너넷 오해령 CS본부장 역시 신생 벤처기업 입장에서 NCS기업활용컨설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며 만족을 표했다.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신생기업 여건상 외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NCS기업활용컨설팅을 받으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으로 직원들 교육이나 복지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사업을 진행할 때도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무엇보다 유경험자들의 컨설팅은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주)에너넷은 직무별 NCS 적용 후 총 11개의 직무에 대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최종적으로 ‘블라인드 채용패키지’ 그리고 ‘재직자 훈련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 채용의 확대와 업무 안정화, 교육훈련체계의 내실화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주)에너넷은 구축된 채용패키지를 활용하여 지난 8~9월 총 19명을 채용했는데, 자격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하는 현장 기술직을 제외한 그 외 직군은 모두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했다. 곧 직무중심,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 구축으로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반응은 고객 VOC를 줄이면서 사내 성과보상체계로까지 연결돼 든든한 업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단단해진 내실로 더 큰 꿈을 그리다

NCS기업활용컨설팅은 기업과 구성원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인재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줄었고, 컨설팅 이후 채용한 직원의 이직률은 0%다.

“이제는 팀 관리자를 선발할 때도 공개적으로 공모해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직원들은 ‘나도 노력하면 승진할 수 있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업무의 효율도 올라갔어요. 교육 역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직원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이를 부서에서 직접 설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변화는 외부의 인정으로도 이어졌다. ISO 9001, ISO45001 인증을 받았고,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도 선정된 것. 근무환경개선과 직업안정화, 일자리 창출의 공을 인정받아 대전광역시장 표창



까지 수상했다. CS 교육기획팀 최송화 팀장은 이 괄목할 만한 성과의 비결로 ‘CEO의 적극성’을 꼽았다. 기업의 대표자가 현장 근로자에게 NCS기업활용컨설팅의 장점을 설명하고, 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한 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NCS 사례 발표 때도 신승업 대표가 직접 나섰으니 리더의 열정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되는 바다.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구축된 제도를 더 탄탄하게, 그리고 저희에게 딱 맞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주)에너넷의 핵심 기업 가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쉽고 간단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만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력이 이어진다면 2025년까지 매출 300억의 목표 또한 분명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한 신승업 대표는 NCS기업활용컨설팅에 관심은 있지만 망설이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꼭 한번 도전해 볼 것을 권했다.

더 단단해진 내실, 더 큰 꿈. 신 대표와 (주)에너넷은 오늘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 그리고 NCS기업활용컨설팅은, 그 미래를 향한 혁신의 첫 날갯짓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장려상 수상작

# 한 땀, 한 땀, 프랑스 장인의 정신으로

“이게 이태리서 한 땀 한 땀,  
장인이 만든...”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나는 한 땀 한 땀,  
가방을 만드는 사람이다. 내  
가 일하는 곳은 프랑스 파리  
에 위치한 한 명품 브랜드의  
아틀리에(공방). 이곳에서  
는 가죽 재단부터 단면 마  
감까지, 가방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한 명의 장인이 책임  
지고 있다.



※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지면 관계상 실제 수기 내용을 각색하여 짧게 전합니다. 자세한 수기는 월드잡플러  
스(worldjob.or.kr)에서 확인하세요!



### 가족공예, 그리고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

이공계 학생이었던 나는 패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  
지만 문득 나를 정말 설레게 하는 일을 찾고 싶어졌고, 우연한 기  
회로 가족 공예를 접하게 됐다. 공방에서 2년의 견습을 마친 후, 이  
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자 해외 진출을 꿈꾸게 됐다.

패션과 명품의 고장이라 불리는 프랑스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위와  
세분화된 학과(가족제품제조업, 마구제조업, 피혁제조업, 구두제조  
업 등)가 있다. 또한 학교와 회사가 연계되어 학업 중 짧게는 한두  
달의 스타주(Stage·인턴십), 길게는 1~2년간의 직업전문학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 분야 하나에서도 다양하고 심층적인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프랑스로 향했다.

마침내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는 프랑스어를 거의 못 하는 수준이  
었다. 그 와중에 1년여의 어학연수 과정을 진행하며, 이듬해 9월 가  
족 학교 입학 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어학원 선생  
님과 프랑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같은 내용의 자기소개서

와 학업 동기서를 수십 번 읽고 쓰기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이후 학교와 회사 구술 면접에 큰 도움이 됐다. 가죽제품제조 직업자격증(CAP Maroquinerie) 교육 과정이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 지원했고, 희망대로 파리 11구에 위치한 튀 르크틸 직업학교에 입학했다. 학 위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과 일반 과목을 이수하고, 학 년말에는 두 달간의 스타주에 참여했다.

### 취업시장에서 경쟁력 높이기

1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CAP 학위를 취득하였지만, 한 층 더 심도 있는 학업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껴 몽벨리אר(Montbéliard) 지역에 위치한 직업 교육센터의 프로그램 'Fabricant de Maroquinerie d'Art(FMA)'에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험과 면접을 거친 후 회사와 견습계약을 체결해야만 최종 입학이 확정됐고, 나는 지난번 스타주를 했던 회사에 어필해 계약을 맺어 학업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입학 후 2~3주 간격으로 회사 실습과 학교 수업을 번 갈아 가며 진행했다. 2년간 몽벨리 아르에서는 학업을, 파리에서는 회사 생활을 위해 2시간 30분 거리의 지역을 오가며 노력한 것이다. 덕분에 나는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예술 분야 교육 및 직업 박람회에서 시연을 맡기도 하고, 수석 졸업이라는 뜻깊은 결과도 얻었다.

### La vie en rose 라비앙로즈, 장밋빛 인생

코로나19로 취업이 불투명해졌지만, 나는 돌아가기보다 현지에 남기를 택했다. 차선책으로 지원했던 또 다른 학교에 입학하여 꾸준히 기술을 연마하던 중,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먼저 스카우트 제안이 왔다.

입사 2년 차인 지금은 명품 브랜드 아틀리에에서 한 명의 장인으로 인정받아 일주일에 한두 점의 가방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파리 본점과 백화점에서 열리는 브랜드 행사에서 시연 퍼포먼스를 맡거나 제품 A/S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 중이다. 앞으로 경력을 탄탄히 쌓은 후, 프랑스 정부가 4년마다 개최해 국가 공인 명장을 선발하는 프랑스 최고 장인 콩쿠르에 도전할 계획이다.

어디에서든 힘들고 무의미한 시간은 존재한다. 아름답게만 보이는 장미밭에도 가시와 진딧물은 있듯이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신만의 꽃이 건강하게 만발하는 시간이 올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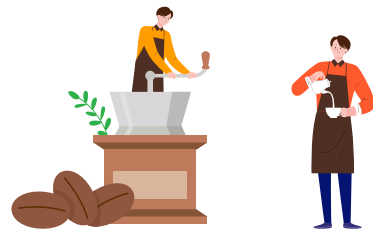






#상생스토리

매월 상생스토리에서는 공단과  
PRESG 업무 협약을 맺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들을 응원해주세요.



찬울  
찬솔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김인환

업종 위생지, 화장지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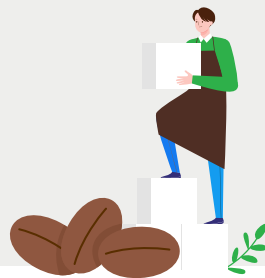
사업 물티슈·펄프류 제조  
카페테리아, 스마트팜 운영  
친환경 교구 개발 등

본사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60  
T. 052-274-3737



# 성장과 자립이 움트는 희망일터를 일구다

## 찬솔사회적협동조합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며 느꼈던 안타까움이 그 발단이었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세운 '찬솔사회적협동조합'의 목표는 발달장애인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를 일구는 것. 오늘도 그 목표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매진하는 김인환 대표를 만나보았다.

### 찬솔사회적협동조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찬솔사회적협동조합(이하 찬솔)은 발달장애인을 주체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현직 특수학교 선생님이 세운 기업입니다. 발달장애인 학생들은 졸업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특히 울산은 중화학자동차기반의 도시이다 보니 기업들도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며, 업무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졸업생들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봐 온 저를 포함한 태연 특수학교 교사 여섯 명이 뜻을 모은 게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졸업생을 채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찬솔을 설립하고, 2018년 첫째 매출 6천만 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약 10억 원의 연 매출

을 달성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수도 처음 2명에서 15명으로 늘었죠. 찬솔의 모든 임원들은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으며, 수익금의 전액을 발달장애인 고용 창출에 투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어갈 예정이에요.

### 현재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로는 무엇이 있나요?

찬솔에서는 채용 대상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를 사업모델로 개발하려 합니다. 현재 제조사업부·카페테리아사업부·친환경사업부·교육사업부 총 네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제조사업부에서는 멀티슈와 펄프류를 생산하여 전국 관공서 및 기업체, 요식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어요. 카페테리아사업부에서는 바로 이곳, 소소한 카페와 지관서가 등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친환경사업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스마트팜을 통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특수교육 기관 및 노인 요양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조립 교구 개발에 힘쓰고 있죠.



###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카페테리아 사업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특수학교 교육과정 중 바리스타 분야가 있어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따는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카페를 열어 발달장애인을 채용한 거죠. 특이한 점은, 찬솔이 운영하는 카페에 소속된 바리스타는 모두 ‘매니저’라는 거예요.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는 여러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지만 주문 관리나 결제는 맡기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포스시스템(POS system)을 직접 다루게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으니, 재고 파악이나 주문도 해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점차 카페 운영에도 익숙해지고, 언젠간 직접 가게를 차리는 것까지 기대해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창업 지원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어요. 찬솔을 통해 성장한 바리스타가 창업한 가게에 개업식 화분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 제 꿈 중 하나입니다.

###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며

### 가장 의미 깊었던 순간을 꼽으신다면요?

설립 당시, 학교 선생님들의 사비로 시작된 회사인만큼 충분한 자본금이 받쳐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화장지 기계를 샀을 땐 제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장님께 무일푼으로 7,800만 원짜리 기계를 받아오며 1년 안에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전부 상환할 수 있었죠. 사업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지만, 우리의 진심이 통해 나온 결과라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하지만 가장 보람된 건 역시 직원들의 성장이에요. 업무적인 측면뿐 아니라 관계·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전에 없던 여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동료를 챙기기도 해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꼭 본인이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가게로 가더라고요. 고객사인 자영업자들에게 나름의 방법으로 보답하는 거죠. 심지어는 주문을 직접 받아오기도 하니, 영업관리까지 하는 셈이에요. 기특하지 않을 수가 없죠.



## 새롭게 계획 중인 일이 있으시다면요?

울산 지역의 산업 특성상 현장에서 부품 조립 등 손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재나 교구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만들어보자’ 한 거죠. 교구를 개발하는 주체는 물론 발달장애인이고요. 구상과 테스트, 특허 출원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지는 도구인 만큼 안전에도 크게 신경을 써서, 원목 및 천연염료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어요. 앞으로는 단순히 교구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예컨대 발달장애인이 교구를 재료로써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저희는 그들에게 개발자의 지위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게끔 교육하고, 또 그 작품을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발달장애인 경제활동의 패러다임 혁신을 불러오리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키가 크든 작든 사람 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아가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슴속에 갖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발달장애인을 만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무작정 도움이나 지원을 주는 게 아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그들도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어요. 장애가 있든 없든 서로 간 사람으로서 이해와 존중이 동반되면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 믿습니다.



##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생협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는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 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인식해보세요!



## 그리움이 이야기가 되다 속초 아바이마을

여행이란 단지 그곳에 가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눈과 귀로, 부지런한 다리로, 나아가 온 마음으로...  
그리움이 닿는 자리마다 이야기가 된 곳,  
속초 아바이마을로 가본다.





### 실향민의 애환과 꿈을 품은 마을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자리한 아바이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실향민 집단정착촌이다. 한국전쟁 중 피난 내려온 함경도민들이 곧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이곳에 임시로 정착했다. 모래사장이라 집을 짓기도 쉽지 않고 바닷물을 머금고 있어 식수 확보도 어려운 곳이었다.

당시 실향민 중에는 유독 나이가 지긋한 함경도 출신 남성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함경도 사투리인 ‘아바이’를 따 아바이마을로 불렸다. 아바이마을 실향민들은 같은 고향 출신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신평, 정평, 홍원, 단천, 앵고치, 짜고치, 신창, 이원마을 등 집단촌을 이뤘다.

조용하고 한적한 실향민촌이었던 아바이마을은 1990년대 말 속초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이 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 방영한 KBS 드라마 <가을동화>가 이곳에서 촬영되면서 유명해졌다. 주민들은 대부분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광지로 이름이 나면서 식당과 숙박 시설이 많이 늘었다.

### 갯배 타고 아바이마을 한 바퀴

아바이마을의 명물은 단연 갯배다. 지금이야 다리가 연결되어 자동차로 편히 갈 수 있지만, 한때 갯배는 아바이마을과 속초 시내를 이어주는 최





1. 아바이마을 전경
2. 문화예술공간 아트플랫폼 갯배 갤러리
3. 작은 바지선 형태의 갯배
4. 속초의 명물 오징어로 만든 오징어순대
5. 함경도 손맛이 느껴지는 아바이순대



고의 교통수단이었다. 작은 바지선 형태인 갯배는 직접 사람이 와이어 줄을 끌어당겨야만 움직인다. 수로 양쪽에 튼튼한 철선을 고정한 후 갈고리를 걸어 힘껏 당기면 배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갯배를 탄 사람이 사공을 도와야 속도가 난다. 갯배를 타고 들어가면 아바이순대와 식해, 냉면 등 함경도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즐비한 먹거리 골목이 나온다. 그 앞으로 나아가면 아담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가을동화>의 남녀 주인공이 함께 거닐던 곳이다.

설악대교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면 마을의 문화예술공간인 '아트플랫폼 갯배 갤러리'가 있다. 컨테이너 2개가 비스듬히 쌓아 올려져 있는 독특한 건물구조로, 실향민들의 애달픈 마음에서 착안해 설계되었다. 양쪽으로 호수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아바이마을의 역사 등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수시로 열린다.

### 고향의 기억 담은 아바이마을의 먹거리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고향의 맛 아닐까. 그래서 서인지 아바이마을에 가면 함경도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아바이순대가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다. 함경도에서는 마을잔치나 경사가 있을 때 돼지 대창으로 순대를 만들었는데, 시래기, 다진 돼지고기, 선지, 마늘, 된장 등을 버무려 속을 채웠다. 또한, 속초의 명물인 오징어 몸통 속에 다진 돼지고기와 각종 채소를 곱게 다져 넣은 다음 찌먹는 오징어순대도 아바이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다.

실향민 대표 음식으로 꼽히는 또 하나의 음식이 바로 식해다. 본래 함경도 지방 고유의 저장 음식으로, 고춧가루 양념에 명태나 가자미, 갈치, 멸치 등을 삭혀 만든 일종의 젓갈이다. 함흥냉면 위에 꾸미로 올리거나, 아바이순대나 오징어순대에 곁들여 먹는다. 시원하고 매콤한 맛으로, 다른 음식들과 어우러지면 더욱 풍부한 맛의 공합을 느낄 수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향의 맛이라도 느껴 보고 싶은 이들에게 아바이마을은 다양한 맛과 이야기로 고향의 따스한 기억을 전한다.



## 함께 둘러보면 좋은 동네방네



속초해수욕장 정문에는 국내 유일의 해변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있다. 높이 65m의 대관람차에 타면 눈부시게 푸른 속초의 바다는 물론 계절마다 달라지는 설악산의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밤에는 속초 시내의 근사한 야경을 즐길 수 있어 데이트 명소로 손색이 없다.

강원 속초시 청호해안길 2

영금정은 파도가 석벽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거문고 소리와 같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일몰 풍경이 압권이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대한민국 야간관광명소 100선' 중 하나로, 밤바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강원도 속초시 영금정로 43



속초해수욕장에서 외옹치항까지 이어지는 총 1.74km의 해안 산책길이다. 외옹치 해안은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지난 2018년에야

65년 만에 개방됐다. 시원한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강원 속초시 대포동 656-14





RETRO

## 세대를 관통하는 감성

### 남녀노소가 소비하는 메가트렌드

H.O.T.의 '캔디'를 듣고 통 큰 바지를 입는다. 오래된 밀가루 브랜드 상표가 그려진 굿즈가 불티나게 팔린다. 먼 과거가 아닌 2023년 대한민국의 풍경이다.

사실 레트로 열풍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0년을 전후로, 1980~90년대 초중반을 회상하는 무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tvN <응답하라> 시리즈, 영화 <건축학개론>의 흥행도 이런 흐름에서다.

전 세대를 아우른 레트로 붐은 이어서 MZ세대의 뉴트로(Newtro)로 한 단계 발전했다. 뉴트로란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 또는 방식을 뜻하는데, 레트로에 요즘 감성을 한 술갈 더해 재해석한 경우다.

인스타그램 감성이 느껴지는 카페 공간 한쪽에 자개장 인테리어를 가미하거나, 외관과 내부는 복고풍이지만 세련된 메뉴와 플레이팅을 제공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뉴트로 스타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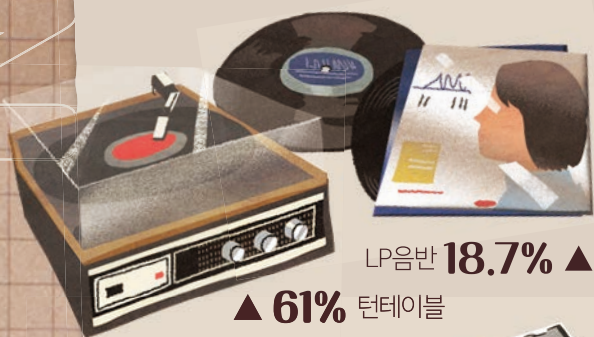




## 겪어보지 않은 시대를 사랑하는 이유

LP 매장 또한 최근 뉴트로 열풍과 함께 다시금 전성기를 맞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실제 턴테이블에 익숙한 세대는 물론 MZ세대까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대신 LP판을 찾는 등, 옛 향수와 젊은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이다.

그 시절을 겪어보지 않은 MZ세대가 왜 예스러움에 빠졌을까? 서용구 한국유통학회 회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은 시대적 상황이 그 이유 중 하나다. 현실이 팍팍할수록 노스탤지어를 갈망하기 마련이기에 MZ세대 역시 이런 것들을 위안으로 삼는 것이다.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마냥 즐겁고 유쾌해 보이는 과거가 하나의 도피처이자 판타지가 되어준다. 이처럼 MZ세대에게 뉴트로로는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자 일상에서의 해방감을 맛보게 해주는 도구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긴 기성세대가 과거를 추억하며 '복고'를 논했던 것과 다른 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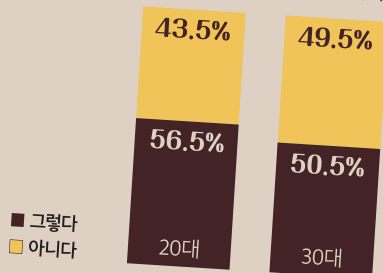


## 오래된 이야기가 궁금한 MZ

MZ세대는 '사람'에게서도 레트로한 감성을 찾는다. 젊은 세대가 시니어 스타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상만 봐도 그렇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스타가 패션, 식생활, 취미 등 본인 세대의 전유물로 존재했던 문화를 활용해 젊은 세대와 친근하게 소통하고 있다. 패션 팁을 비롯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며 MZ세대의 새로운 롤모델로 떠오른 유튜버 '밀라논나', 요리와 춤 그리고 화장법 등을 주제로 시니어 문화를 유쾌하게 전파하는 실버 크리에이터 '박막례' 등이 대표적이다. 한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20·30세대 두 명 중 한 명이 '진짜 어른'의 부재를 느끼며, 존경할만한 손윗사람을 필요로 한다. MZ세대는 따스함과 정겨운 정서는 기본으로 삶의 지혜까지 배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시니어 스타를 찾는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기성세대는 '젊은 소통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꼰대'의 이미지를 벗고, 젊은 세대가 귀를 기울이고 싶은 인생 선배가 되는 것 같은 연배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나누는 것 그 시도는 분명 몇 세대 간 거리를 좁혀줄 것이다.

## 존경할만한 주변의 어른이 있는가?

(2020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 단계 #성장하며  
뜨는 키워드, 뜨는 직up

불황에 맞서는  
즐거운 소비생활



# 체리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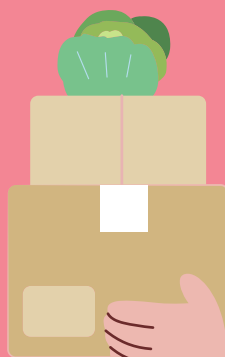
#체리슈머

#조각 전략

#반반 전략

#말랑 전략

#문간에 발 들여놓기



전례 없는 불황으로 소비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이른바 현대판 보릿고개 속에서 과소비는 지양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는 '체리슈머'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체리슈머에 대해 알아본다.

### #체리슈머

#### 실속형 소비자의 등장

얼마 전 한 건물에 사는 입주자들끼리 한 번에 음식을 주문해 배달비를 나누는 배달 공동구매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혜택은 누리고 비용부담은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알맹이만 쏙쏙 골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바로 '체리슈머(cherry-sumer)'다.

체리슈머란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알뜰하게 소비하는 소비자를 이르는 말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제시한 신조어다. 흔히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피커(cherry-picker)'라고 부르는데, 체리슈머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총동원해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는 뜻이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경기가 나빠질 때 절약을 앞세운 소위 짠테크 소비가 확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들의 모습은 과거의 불황 때와 다른 점이 많다. 자신의 소비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편집한다는 점에서다. 실질구매력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를 포기하기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출을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장을 좌우하는 하나의 소비 트렌드, 체리슈머다.

### #조각 전략 #반반 전략

#### 조각내고 나누고, 체리슈머의 전략

체리슈머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 소량 구매하는 '조각 전략'을 실천한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장보기다. 당장 지출되는 비용이 적고 낭비되는 음식물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개당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소량 구매를 선호한다. 이에 발맞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들은 소포장·소용량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CU는 '싱싱생생' 시리즈를 론칭해 마늘, 고추, 대파, 모듬쌈 등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들을 한두 끼 양으로 판매한다. 꼭 사고 싶지만 혼자서 비용을 전부 지불하기엔 부담스럽고, 조각내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이럴 때 체리슈머는 비용과 효용을 잘 나눌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선다. 바로 '반반 전략'이다. 앞서 살펴본 배달 공구가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도 대량판매 상품을 소분하여 재판매하는 등 반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리슈머들을 SNS나 중고거래 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지난해 7월 동네 이웃들이 모여서 같이 사고 나누는 '같이 사요' 서비스를 론칭했다.



### #말랑 전략

#### 작고 유연한 소비로 불황에 맞서다

체리슈머는 언제 어디서든 해지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을 통해 소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른바 '말랑 전략'이다. 유연한 계약 조건은 장기계약에 비해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계약의 재량을 보장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단기 단위로 가입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등 합리성을 강조한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여행 업계에서는 유연한 환불 정책을 내걸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계약을 원하는 체리슈머를 공략하고 있다.

한때 '올로'와 '플렉스'를 외치던 젊은이들이 이러한 실속소비에 눈을 뜬 것은 경기 악화라는 원인이 가장 크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작고 유연한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무엇보다 똑똑하고 창의적인 MZ세대의 성향이 체리슈머 트렌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를 포기하거나 줄이는 수동적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타인과 함께 창의적인 방식을 도출해내며 소비를 현명하게 관리해나간다.

### #문간에 발 들여놓기

#### 시장을 이끌 체리슈머를 잡아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대처라는 시각에서 보면 체리슈머의 등장을 일시적인 변화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현명한 소비 관리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 완화 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작고 유연한 소비를 원하는 체리슈머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라면 작은 샘플로 특정 제품을 경험하거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브랜드 문간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전략으로, 브랜드의 친숙도를 높이고 다른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가격대별로 촘촘한 제품군을 마련하여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역할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시장에서 상품을 단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주체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중형무진 활약하는 시대가 왔다. 전례 없는 불황으로 경제 전체가 새로운 변신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기회일지 모른다.





# 이런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 포장(패키지) 디자이너

Package Designer



### 무슨 일을 하나요?

취급·보관의 편리성, 제품의 광고, 포장비용 절감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지를 디자인합니다.

###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창의적이며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 꼼꼼하고 섬세하다!
-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 도움이 될 자격 Tip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디자인에 관한 기초이론 지식으로 시각디자인과 관련된 광고, 포장디자인 등의 시각적 형상물을 채색과 조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자격입니다.

#### 진출 분야

웹·애니메이션·게임 개발업체, 출판업체, 영상 제작업체 등

## 상품기획자

Product planner



### 무슨 일을 하나요?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소비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기획·개발합니다.

###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살핀다!
- 변화에 대해 개방적인 편이다!
- 정보를 분석하거나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한다!

### 도움이 될 자격 Tip

#### 유통관리사

유통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 진출 분야

유통 관련 기관 및 유통회사, 물류회사 등



취업준비생에게 면접은 가장 두려운 관문 중 하나!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더욱 면밀해지고 다변화되는 면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유형별 면접의 특성과 도움이 될 팁까지 알아보자.

## 면접 유형별 완전 정복!



### 하나, 실무면접

**“연관성 없는 경험보다는 논리적 사고를 내세울 것”**

실무자의 입장에서 면접자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지녔는지 판단한다. 함께 일하게 될 사람을 뽑는 것이므로 관련 경력,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최대한 자신이 보유한 경험을 살려 실제 업무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어필하면 좋다. 직무 관련 경험치가 부족할 경우 연관성 없는 다른 경험을 억지로 연결시키기 보다, 현직자가 됐다는 마음으로 지원한 기업의 현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 둘, 임원면접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라”**

최근 조직이 젊어짐에 따라, 임원면접도 이전의 고리타분함에서 벗어나 좀 더 지원자의 역량을 중점으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다. 1차 면접과 동일하게 준비하되, 임원들은 기업의 문제를 거시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회사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면접자는 정치·경제·사회·기술적인 이슈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

**셋, PT면접****“구조화된 답변, 전달력 향상을 위해  
트레이닝할 것”**

전달력·논리력·태도를 주로 점검하는 PT면접은 입사 후 자주 하게 될 업무보고의 축약판이다. 기업은 PT면접을 통해 지원자가 어떤 주제와 관련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답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치를 미리 판단할 수 있다. PT면접을 준비할 땐 모든 답변을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조화 시켜보면 좋다. 증권방송이나 아나운서 프레젠테이션 등을 보면서 비언어적 부분을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넷, 토론·토의면접****“논리보다 태도! 떨어지지 않기 위한 면접”**

토론·토의면접은 ‘보여주는’ 면접이기 때문에 관찰 면접이라 불린다. 합격하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기 위한’ 면접이라고도 한다. 토론·토의 진행 중 평가위원들이 수많은 면접자의 논리 하나하나를 검토하긴 어렵기 때문에 무리해서 명확한 답을 도출하기보다는 어휘력, 태도, 순발력 등의 부문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편이 좋다. 면접관이 모든 안보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에 신경 써야 한다.

**다섯, AI면접****“인공지능 면접관이라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AI면접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질문, 인성 검사, 상황 질문, 뇌과학게임, 심층구조화질문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면접관을 대한다는 생각 때문에, 답변 내용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I면접이 진행되는 순간의 모든 상황이 평가 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유지해야 한다.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평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팁이다.

**여섯, 창의면접****“논리성과 동시에 문제에 임하는 태도까지 체크”**

창의성 면접은 지원자가 제시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하고, 면접관이 추가로 질문하는 형태의 면접이다. 창의성 면접을 본 지원자는 이를 ‘미리 준비할 수 없는 면접’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목적은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닌 논리적 추론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확인하는 데 있다. 면접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성이나 태도를 함께 평가하기도 한다.

**일곱, 합숙면접****“인성과 끈기로 최종 결실!”**

방역대책이 변화함에 따라 합숙면접이 부활하고 있다. 이는 지원자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을 때 사용되는 면접이다. 합숙면접에서는 대개 한계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과제를 내고, 그때 나오는 지원자의 솔직한 모습을 관찰하게 된다. 명확하고 창의적인 아웃풋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 융화될 수 있는 인성, 적극적인 자세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홍보미디어실(052-714-8196)로 문의

## 새해를 맞는 청렴의 다짐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앙에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뿌리 깊은 불평등과 각자도생의 위기 속에 허우적대며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하게 되고 그 결과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이라도 하듯,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논어 15년 29장에 있는 구절로서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를 허물이라 한다(과이불개시위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나



잘못된 방법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내고 고치는 것이 역경 극복의 최우선이라는 가르침이기도 할 것입니다.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의 ‘후회한다면 잘못을 고쳐보라’는 글에 따르면 세종이 잘못을 인정한 기록이 ‘세종실록’에 10여 차례 등장하는데, 잘못 임명해 외교 망신을 당했을 때, 나랏일에 몰두하느라 신하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을 때,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역질로 백성들이 많이 죽었을 때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비판하는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에서 ‘청렴’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이며,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조직과 지역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청렴’은 1949년 현대 공무원 제도가 수립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돼 왔으며 현행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청렴의무를 필수사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에서부터 현시대의 공직자들까지 실천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청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도 작은 생각과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청렴 또한 작은 습관과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청렴은 수령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기에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이 목민관의 자세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공직자에게 청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며 신뢰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과거에는 뇌물수수, 횡령 등을 부정부패로 인식했다면 최근에는 더 나아가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근무 태만, 불친절에 대해서도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은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민원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등 기본적인 부분이 지켜져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더 나아가 청렴이 실천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누군가가 시켜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청렴에 대해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기 보다는 작은 것부터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개선하는 속에서 습관처럼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인다면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건강한 공직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 HRD NEWS

2023 February vol. 320

01

HRD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공단은 1월 6일(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장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오는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프랑스 메스에서 개최 예정인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국가대표 훈련 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공단은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국가대표 훈련을 위해 인천 소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의 훈련시설·장비, 기숙사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오늘의 협약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하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02

HRD

## 공단,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후원물품 전달



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반올림 아동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8일 울산장애인복지관, 19일 함월 노인복지관을 잇달아 방문해 총 4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울산으로 본부를 이전한 2014년부터 공단은 지역과의 상생,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 중이다. ‘HRDK 나누미’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만들어 매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기부받아, 명절마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자매결연을 한 중구 반구시장에서 매년 후원 물품을 구매하고 임직원에게 지역하폐 사 용을 독려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울산 사회적기업과 협업체 플라스틱 장난감 및 중고 서적 등을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해 소외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힘쓰고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전했다.

### 03

HRD

#### 공단, ‘매일 메일 비우기 챌린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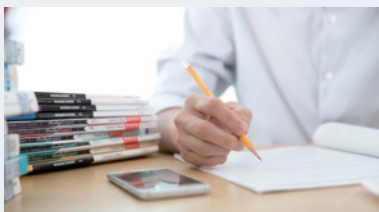


공단은 1월 20일(금)부터 3월 24일(금)까지 1분기 ‘매일 메일 비우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 임직원이 매일 퇴근 전 자신의 이메일 수발신함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지우는 캠페인이다. 간편히 메일 삭제 버튼을 눌러, 인터넷 사용과 데이터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디지털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통해 디지털 탄소 약 800kg, 소나무 90여 그루가 연간 흡수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감축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효과성 점검 및 홍보를 통해 임직원 참여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디지털 탄소 약 13.3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수봉 이사장은 “불필요한 이메일을 제거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 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일반 시민들도 친환경 운동에 간편히 참여할 수 있어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04

HRD

#### 공단,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Top 5 발표



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청년 중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취득했다. 미취업 상태 취득자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노동 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재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취득자가 1,000명 미만(200명 이상)인 자격에서는 승강기기사 자격 취득자의 87.0%가 1년 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어수봉 이사장은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데, 자격증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해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독자 여러분의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여기간  
2월 27일(월)까지

올해 꼭 배우고 싶은 것, 또는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HRD KOREA’ 이번 호 테마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 상품(3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vol.320 HRDKorea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왼쪽의 QR 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 함께 만드는 HRD Korea! 사업 참여 스토리 공모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단 사업에 참여 경험 이야기 등을 사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훈련 참여 스토리, 국가기술자격 취득 스토리 등...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 분량 A4용지 1장 내외(글자수 약 2천자)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mailto:dyy927@hrdkorea.or.kr)  
응모 기한 2월 27일(월)까지







**hRiDKorea**

2023년 1월호  
당첨자

—  
2023년 1월호 의견 일부를  
요약해 전합니다.

황경연 | 전경욱 | 김종신 | 심효경 | 황숙희

###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연말 제빵기능 실기를 준비하느라 집에서 온몸이 밀가루 범벅이 되어 가며 빵을 만들던 기억이 나네요. 올해는 합격의 영광을 안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경연

화학물질, 화공약품 취급 및 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 화공안전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네요. 향후 커리어에 날개를 달기 위해 저도 도전해보려 합니다.

전경욱

학창 시절 책의 제목과 지은이만 외우곤 했던 제가 이제 고전이라는 딱딱한 책을, 천천히 씹을수록 단맛을 느끼는 법처럼 읽습니다. 올해 1달에 1권 고전 읽기를 초지일관 실천하고 싶습니다.

김종신

'내 인생을 바꾼 국가기술자격'을 보고 세상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저도 스스로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효경

칠전팔기 노력 끝에 정보처리1호 대한민국명장의 타이틀을 거머쥔 유지대 대표의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전과 노력을 다하면 꿈은 꼭 이뤄진다는 믿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숙희



**hRiDKorea**

이번호는 어떠셨나요?

QR코드, 이메일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mailto:dyy927@hrdkorea.or.kr)

\*당첨자 안내를 위해 이름,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b>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b>			<b>1</b> •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1.28~2.1) •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원서접수(1.30~2.3) • 제21회 경매사 1차 원서접수(1.30~2.3)	<b>2</b>	<b>3</b>	<b>4</b> •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b>5</b>	<b>6</b> •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원서접수(2.6~2.10) • 제40회 관세사 1, 2차 원서접수(2.6~2.10)	<b>7</b>	<b>8</b> •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기능장 제73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b>9</b>	<b>10</b>	<b>11</b>
<b>12</b>	<b>13</b> • 기사 제1회 필기시험(2.13~2.28) :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원서접수(2.13~2.17)	<b>14</b>	<b>15</b> •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합격예정자 발표	<b>16</b> • 제21회 경매사 1차 빈자리 원서접수(2.16~2.17)	<b>17</b>	<b>18</b> •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b>19</b>	<b>20</b> •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 원서접수(2.20~2.23) •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원서접수(2.20~2.23) •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2.20~2.23) •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원서접수(2.20~2.24) • 제41회 문화재수리기능자 1차 원서접수(2.20~2.24) •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1차 원서접수(2.20~2.24)	<b>21</b>	<b>22</b>	<b>23</b> •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빈자리 원서접수(2.23~2.24)	<b>24</b>	<b>25</b> • 제21회 경매사 1차 시험
<b>26</b>	<b>27</b>	<b>28</b>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2.20~2.23, ②3.21~3.24에 2번 접수하며, 2021년 제123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2.20~2.23에만 원서접수 가능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미리 알아보는 3월 일정	<b>○ 국가기술자격</b> • 기사 제1회 필기시험(3.1~3.15) :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 자 • 기능사 제2회 필기시험 원서접수(3.13~3.16) •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3.15) • 기사 제1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3.21) •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 원서접수(3.21~3.24) •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3.25~4.7) •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3.25~4.7) •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3.28~3.31) ..... *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2.20~2.23, ②3.21~3.24에 2번 접수하며, 2021년 제123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2.20~2.23에만 원서접수 가능	<b>○ 국가전문자격</b> • 제40회 관세사 1, 2차 빈자리원서접수(3.2~3.3) •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3.4) • 제38회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1차 시험 원서접수(3.6~3.10) • 제40회 관세사 1, 2차 시험(3.11) •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합격자 최종발표(3.15) • 제60회 변리사 1차 합격자발표(3.22) •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1차 빈자리원서접수(3.23~3.24) • 제41회 문화재수리기능자 1차 시험(3.25) •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3.27~3.31) • 제33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원서접수(3.27~3.31) • 제21회 경매사 1차 합격자발표(3.29) ..... * 부득이한 경우 시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	--



# OPEN YOUR DREAM

## 당신의 꿈을 열어줄 평생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 HRDK로 능력을 짓다

**K-HRD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